

세계 맥주시장 동향

기획조사팀



2011년 세계맥주 소비량은 약 18억 6400만 헥토리터로 2010년에 비해 2.4%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판매 증가는 아시아 지역 업체들의 선전에 힘입은 것으로 판매량 기준 상위 15개 맥주업체중 작년 5% 이상의 판매 증가를 기록한 곳은 중국의 CRE(China Resources Enterprise Ltd)(전년대비 10.3% 증가), 칭타오(Tsingtao Brewery)(12.6% 증가), 베이징 양징맥주(Beijing Yanjing Beer Group)(7.5% 증가), 필리핀의 산미구엘 맥주(San Miguel Brewery)(10% 증가), 일본의 산토리(Suntory Ltd)(5.8% 증가) 로 모두 아시아 지

2011 세계 상위 15개 맥주 제조사

단위 : 백만 헥토리터

순위	회사명	본사위치	판매량			증감(%)	
			2009	2010	2011	09-10	10-11
1	Anheuser-Busch Inbev	벨 기 에	468.8	476.0	479.7	1.5%	0.8%
2	SABmiller	영 국	223.0	227.6	229.2	2.1%	0.7%
3	Heineken	네 델 란 드	164.6	159.5	164.6	-3.1%	3.2%
4	Carlsberg Breweries	덴 마 크	116.0	114.2	118.7	-1.6%	3.9%
5	China Resources	중 국	83.7	92.8	102.4	10.9%	10.3%
상위 5개사 소계			1,056.1	1,070.1	1,094.6	1.3%	2.3%
6	Tingdao Brewing	중 국	59.7	63.5	71.5	6.4%	12.6%
7	Molson Coors Brewing	미 국	66.7	60.9	62.6	-8.7%	2.7%
8	Beijin Yanjing Beer Group	중 국	46.7	50.3	54.1	7.7%	7.5%
9	Kirin Brewery	일 본	53.0	51.8	50.7	-2.3%	-2.1%
10	Asahi Brewery	일 본	38.2	38.2	39.1	0.1%	2.4%
상위 10개사 소계			1,320.4	1,334.8	1,372.5	1.1%	2.8%
11	Guinness Brewing(Diageo)	영 국	22.4	22.9	23.8	2.2%	3.9%
12	Efes Beverage Group	터 키	22.1	24.2	23.0	9.5%	-5.0%
13	San Miguel Brewery	필 리 핀	16.0	15.6	17.2	-2.3%	10.0%
14	Suntory Ltd	일 본	13.4	14.1	15.0	5.2%	5.8%
15	Radeberger Gruppe	독 일	13.4	13.1	13.0	-2.2%	-1.0%
상위 15개사 소계			1,407.7	1,424.7	1,464.4	1.2%	2.8%

역 업체들이다. 세계 맥주시장 상위 15개 업체들의 맥주 판매량은 14억 6,440만 헥토리터로 2010년에 비해 2.8% 증가하였으며, 이 업체들은 세계맥주시장의 80.6%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최대 맥주업체인 AB인베브(Anheuser-Busch Inbev)와 2위 SAB밀러(SABMiller)는 각각 0.8%, 0.7% 증가하며 판매량에서는 전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대규모 인수를 성사시켰다. AB인베브는 지난 6월 코로나(Corona)로 유명한 멕시코 맥주회사 모델로(Grupo Modelo)의 잔여 지분(50%)을 20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번 딜은 2013년 1/4분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그루포 모델로는 멕시코 맥주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AB인베브는 기존 그루포 모델로의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번 인수로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AB인베브는 2011년 4억 7,970만 헥토리터의 맥주를 판매하며 세계 맥주시장점유율 26%를 차지하고 있다.

SAB밀러는 2011년 12월 호주 포스터맥주사(Foster's) 인수를 완료하였다. 인수 금액은 100억 달러로 추

2011 상위 15개 맥주제품

단위 : 백만 헥토리터

순위	제품명	회사명	본사위치	판매량			증감(%)	
				2009	2010	2011	09-10	10-11
1	Snow	China Resources	중 국	72.4	84.1	91.6	16.1%	9.0%
2	Bud Light	Anheuser-Busch Inbev	미 국	51.8	51.0	50.5	-1.5%	-1.0%
3	Tsingtao	Qingdao Brewing	중 국	29.6	34.8	39.9	17.6%	14.7%
4	Budweiser	Anheuser-Busch Inbev	미 국	35.8	36.4	37.6	1.7%	3.2%
5	Skol	Anheuser-Busch Inbev	브 라 질	34.9	36.0	36.5	3.0%	1.5%
상위 5개 제품 소개				224.4	242.2	256.0	7.9%	5.7%
6	Corona	Anheuser-Busch Inbev	멕 시 코	32.5	32.5	33.5	0.2%	3.0%
7	Brahma	Anheuser-Busch Inbev	브 라 질	29.7	30.4	31.0	2.5%	2.0%
8	Heineken	Heineken	네덜란드	28.1	28.8	30.1	2.5%	4.5%
9	Coors Light	Molson Coors Brewing	미 국	25.0	25.0	25.5	0.0%	2.0%
10	Yanjing	Beijin Yanjing Beer Group	중 국	21.4	23.5	25.2	9.5%	7.5%
상위 10개 제품 소개				361.0	382.4	401.3	5.9%	5.0%
11	Harbin	Anheuser-Busch Inbev	중 국	19.3	19.9	21.1	3.0%	6.0%
12	Miller Lite	SABMiller	미 국	20.7	19.9	19.3	-3.5%	-3.0%
13	Baltika	Carlsberg Breweries	러 시 아	17.8	17.1	16.5	-4.0%	-3.5%
14	Asahi Super Dry	Asahi Brewery	일 본	15.3	14.7	14.2	-3.7%	-3.7%
15	Sedrin	Anheuser-Busch Inbev	중 국	13.1	13.5	14.0	3.0%	4.0%
상위 15개 제품 소개				447.2	467.5	486.5	4.5%	4.1%
상위 15개 제품 점유율				28.7%	28.6%	28.4%		

정되고 있다. 포스터는 연간 900만 헥토리터의 규모의 맥주를 판매하고 있으며, 호주 맥주시장 점유율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호주는 세계 20위권의 맥주 소비국으로 맥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품별로는 중국 CRE의 '스노우(설화)'가 9,160만 헥토리터가 판매되었다. 스노우는 대부분 중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맥주 소비가 많아 글로벌 제품들에 비해 훨씬 많이 소비되고 있다. 스노우는 중국내 2위이자 세계 3위 제품인 '칭타오(Tsingtao)'와의 판매량 격차를 벌리고 있다. 이는 지방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스노우의 소비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SAB밀러는 CRE의 지분 49%를 보유중이다.

AB인베브의 '버드 라이트(Bud Light)'와 '버드와이저(Budweiser)'는 각각 2, 4위에 올랐다. 2011년 버드 라이트는 5,050만 헥토리터가 판매되며 전년에 비해 소폭(-1.0%) 감소한 반면 버드와이저는 3,760만 헥토리터로 3.2% 증가하였다. AB인베브는 세계 최대 맥주업체답게 상위 15개 맥주 제품중 7개(Bud Light, Budweiser, Skol, Corona, Brahma, Harbin, Sedrin)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억 9,010만 헥토리터로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이 2억 2,940만 헥토리터로 2위에 올랐다. 한때 세계 1위였던 미국의 맥주소비량은 이제 중국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 러시아, 독일, 멕시코가 3~6위에 올랐으며, 일본은 7위를 기록했다. 독일은 8,770만 헥토리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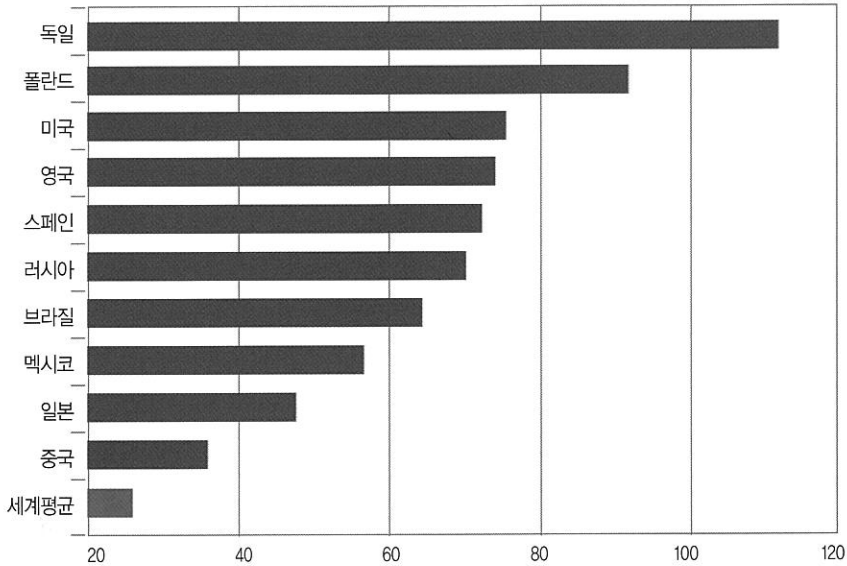
2011 상위 10개 맥주 소비국

단위 : 백만 헥토리터

순위	국가	소비량						증감(%)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10-11
1	중 국	69.2	155.4	223.2	309.3	449.6	490.1	9.0%
2	미 국	226.5	218.2	229.9	235.0	233.1	229.4	-1.6%
3	브 라 질	54.5	80.0	82.6	91.4	116.1	123.0	6.0%
4	러 시 아	33.4	19.8	55.3	87.2	93.3	95.4	-3.0%
5	독 일	113.6	111.0	103.1	95.0	87.9	87.7	-0.2%
상위 5개국 소계		497.2	584.3	694.0	817.9	984.9	1,025.5	4.1%
6	멕 시 코	37.0	40.8	50.4	57.5	63.5	65.5	3.0%
7	일 본	66.5	71.4	71.0	63.3	58.1	56.0	-3.7%
8	영 국	65.2	59.1	57.0	57.6	46.8	45.2	-3.5%
9	폴 란 드	11.3	15.2	22.3	30.7	34.3	34.9	1.6%
10	스 페 인	28.3	27.0	29.2	34.6	32.5	32.8	1.0%
상위 10개국 소계		705.4	797.8	923.8	1,061.6	1,220.2	1,259.9	3.3%
기타국가		404.9	418.3	440.5	497.1	554.1	556.5	0.4%
세계 총계		1,110.3	1,216.1	1,364.3	1,558.7	1,774.3	1,816.4	2.4%

2011 1인당 연간 맥주소비량 (총 소비량 기준 상위 10개국)

단위 : 리터(1인당)



유럽에서 가장 많은 맥주를 소비하였다. 중국에 이어 아시아지역 2위를 기록한 일본의 경우 맥주 소비량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1995년 7,140만 헥토리터였던 일본 맥주 소비량은 2011년 5,600만 헥토리터까지 감소하였다.

영국은 세계 8위에 올랐으며, 폴란드, 스페인 순으로 많은 맥주가 소비되었다.

상위 10개 맥주소비국 중 미국, 독일, 영국과 같은 전통적인 맥주 소비국들의 소비가 감소한 반면, 중국, 브라질, 멕시코 등 신흥 맥주소비국들에서는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상위 10개 맥주소비국의 1인당 맥주소비량은 독일, 폴란드, 미국, 영국 순이었다. 독일은 107리터로 세계 평균인 26리터의 4배 가량 맥주를 소비하고 있다. 😊

〈출처〉 'Impact' 지 2012년 10월호